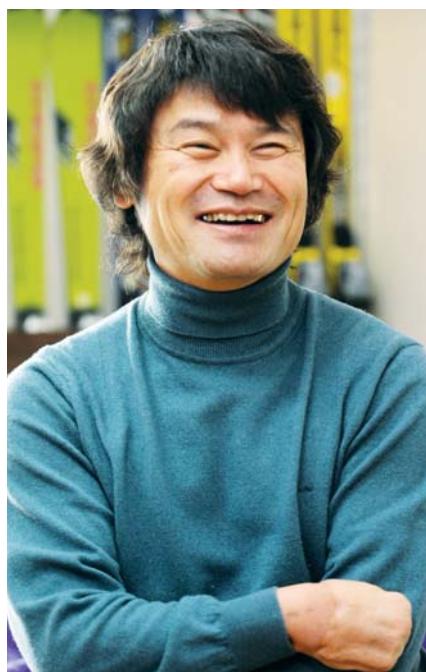


장애인 최초 14회 완등 도전
김홍빈 초오유 원정대 발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

끝없는 도전 통해 꿈·희망·열정의 에너지 얻었다”

“제게 필요한 건 열 손가락이 아닙니다. ‘끝 없는 도전’이라는 목표가 내 인생에 꿈과 희망, 열정의 용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습 니다.”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8000m급 14회 완등에 도전중인 산악인 김홍빈 (48·송원대산악회OB) 대장이 초오유(8201m) 등반에 나선다.

‘송원대학교 승격 기념 2011 김홍빈 초오유 원정대’(단장 윤장현)은 오는 17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리더십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22일 출국, 네팔 카트만두로 향한다.

김 대장은 현지에서 물자준비 등을 마치고 26

일 카트만두를 출발해 코다리(1500m)→장부(2200m)→니알랍(3700m)→라룽라(5050m)→딩그리(4300m)를 거쳐 초오유 해발 5600m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게 된다.

이어 김 대장은 베이스캠프에서 고소적용 훈련을 마치고 북서릉 해발 6400m, 7050m, 7440m 지점에 3개의 캠프를 차례로 구축한 뒤 정상 공격에 나선다.

지난 2009년 빈순메시프(4897m)를 끝으로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완등하고 ‘8000m급 14회 완등’에 도전 중인 김 대장은 지난해 2009년 세계 제7위 봉인 다울라기리(8163m) 정상을 밟아 가서브룸Ⅱ와 시사팡마 남벽(이상 2006년), 에베레스트(2007년), 마칼루

(2008년)에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5개 봉을 등정했다. 이번 초오유 원정이 성공하면 8000m급 6개의 봉우리를 완등, ‘장애인 최초 8000m 14회 완등’이라는 그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김 대장은 “초오유는 첫 도전이니만큼 많은 준비를 했다”며 “이번 도전을 통해 힘들어하는 장애인들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원정은 광주·전남비전21이 주최하고 (사)대한산악연맹 광주시산악연맹, 광주신세계, 광주은행, (주)무등기업, (주)금강전력 등이 후원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황준일 교수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종양내과 황준일 교수가 ‘암 환자에서 염산히드로모르핀 서방정의 효과와 내약성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대한내과학회 2011년 상반기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대한내과학회는 매년 반기별로 우수논문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박영진·김영희 개인정보보호 홍보대사



행정안전부는 개그맨 박영진, 김영희를 개인정보 보호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이들의 캐릭터를 교육·동영

상과 포스터 및 팝플릿 제작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달 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조손가정 초청 캠프



하이마트(회장 선종구)는 9~10일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祖孫)가정의 어린이 50명을 여수 디오션리조트로 초청해 캠프를 열었다.

하이마트 임직원들은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이마트 광고모델인 배우 윤상현이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인명구조 목포해경 3009함 ‘바다의 의인’ 선정

악천후 속에서 바다에 빠진 승객 15명 전원을 구조한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이 국제해사기구(IMO) ‘의인(義人)상’에 선정됐다.

목포해경은 3009함은 바다의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담은 IMO 사무총장의 감사 서한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서한에는 ‘악천후 속에 승객 구조 사실을 인정하며 헌신적인 활동으로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쓰여 있다.

IMO는 바다에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및 해양오염 방지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2006년부터 매년 의인상을 주고 있다.

3009함은 해양경찰청의 추천으로 의인상에 선정됐으며, 오는 11월 IMO 총회 때 상을 받게 된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는 3009함의 인명구조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만도 앞 바다에서 이뤄졌다.

인근을 경비하던 3009함이 악천



후 속에 운항하던 목포선적 495t 화물선 항로 폐리 2호가 전복됐다는

다급한 조난 신호를 듣고 신속하게 사고해역에 도착, 높은 파도와의 사투 끝에 승객 15명 전원을 구조하는 기적을 연출했다.

구조 당시 3009함 함장인 김문홍(동해해양경찰 총봉호 함장) 경정은 “초속 20m가 넘는 강풍과 4~5m 높이의 파도가 이는 해역에서 대원들의 목숨을 건 살신성인의 정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구조작전이었다”고 회상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박우말레 선생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

<수피아여고>

보훈처 275명 훈·포장

광주 수피아여고 재학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른 박우말레 선생이 뒤늦게 포상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

우말레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그동안 자료별로 박영자·박우말레 등으로 이름이 다르게 나와있어 보류돼왔으나 보훈처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경찰청에서 차분 자료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임을 확인해 포상이 이뤄졌다.

보훈처는 제66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박우말레 선생 등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

자 275명에게 건국훈장 (153명)과 건국포장(39명), 대통령 표창(83명) 등을 수여한다.

훈·포장은 오는 15일 광복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되며 해외 거주 유족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된다.

보훈처는 일제의 행형기록 및 정보문서, 신문보도 등을 찾아 분석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행적을 확인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애국지사는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5명, 국장장 3789명, 애족장 4717명, 건국포장 934명, 대통령표창 2331명 등 총 1만2699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이정돈 해남군 기획실장 태풍 비상근무중 과로사



이정돈 해남군 기획홍보실장이 태풍 피해 현장 점검 등 비상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향년 57세.

이 실장은 지난 8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업무 종 갑자기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10일 새벽 숨을 거뒀다.

고인은 제9호 태풍 ‘무이파’ 북상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비상근무와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 등으로 피로가 쌓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광주시간호사회 ‘나라 사랑’ 감사패 받아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안종현)은 10일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최영자)에 나라사랑 교육확산에 기여한 데 따른 감사의 뜻을 담은 국가보훈처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광주시체육회-첨단한방병원 협약



광주시체육회와 첨단한방병원이 10일 학정동 염주체육관 소회의실에서 지정병원 협약식을 갖고, 광주시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스포츠의 학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축

알림

▲김재정(전 동구청 사회산업국장)·이미숙씨 장남 민석군 오세웅·안명자씨 차녀 미영양=13일(토) 오전 11시40분 광주시 서구 메리어트웨딩홀.

▲최세일·조남옥씨 차남 택진군 김윤세(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유온옥씨 장녀 민혜양=20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 출발 : 오전 7시 광주시청 앞, 피로연 : 12일(금)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무안초교 50회 총동창회(회장 김영갑) 수련회=14일(일)~15일(월) 무안 망운 피서리 톱 관광펜션.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523-0474.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노인취업 대표전화 개통=노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위한 대표 번호 1577-6065. 개통, 지역 취업지원센 터장을 통한 취업 상담.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지역번호와 '#'버튼을 통해 광주시연합회 취업 지원센터로 연결.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 :

모집

▲2011년 등하고 도우미 봉사자=19일(금)까지 모집. 중앙초·계립초·장원초·신수초·율곡초 근처, 여성(나이제한 없음), 교통비 등 실비보상.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2011년 숲해설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숲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나 지원 가능, 접수는 13일 (http://cafe.daum.net/forest-guide 접속 후 지원서 다운)(토)까지. 교육기간 8월 16일 ~ 12월 10일.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사무실

062-223-3279.

▲어린이재단 대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한국노후생애대안학교 3기생=50세 이상 중·장년 퇴직후 자기계

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생애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아, 한시,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 심리학(6개월 학기제). 원서 접수는 19일(금)까지 선착순 30명. 신입생 입학식 9월 1일 오전 10시. 062-

223-1357, 019-9152-5023.

▲여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

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부음

▲박일순씨 별세 이명교·정교·영교·영숙씨 모친상=발인 12일(금)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송선일씨 별세 정현·승현·지영씨 부친상=발인 11일(목)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광수(전 광주시 기획실장) 씨 별세 민영(재 이태리 성악가)·정민(방송인)씨 부친상 성백용(안산제일교회 목사)·로아 라이언(재미 지휘자)씨 빙부상=발인 11일(목) 신촌 세브란스 병원 02-2227-7556.

故 박규만 님(남/89세)		故 서민철 님(남/46세)	

<tbl_r cells